

# 해남군, 대한민국 농어업 수도 '청사진' 제시

### 오는 2033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단지 조성 국내 최대 규모 농업연구단지 클러스터화 추진

해남군이 군 최대 산업인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3만5천600ha의 농경지와 청정 땅끝바다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군으로 농어업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가장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해남군이 스마트한 미래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

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과수전문기업인 H&B팜을 유치해 지난 5월부터 화산면 폐교부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과수실증단지 조성하고 있다. 토지면적 2만여㎡와 건물 1천386㎡에는 과수 실증센터와 실증재배 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블루베리 등 해남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우수아열대 품종을 발굴하고 시험재배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2033년까지 215억원을 투입해 14



해남군이 농어업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전략을 내세웠다. 사진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0ha 규모 기후변화 대응 과수단지를 조성한다.

군은 해남을 대한민국 과수 품종 보

급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과수단지는 과수 생산·유통과 함께 청년농·귀농 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프

로그램 운영 등의 일자리 창출 부가 효과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국립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이 될 방침이다.

기존 해남, 완도, 나주 등 3개 시군지를 통합해 이전하게 되는 전남도 과수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신 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적응성 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선도하게 된다. 25ha 규모로 올해 연말 착공해 2028년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해남군은 이에 발맞춰 국내 최대 규모 농업연구단지를 클러스터화

해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연구단지를 연계한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스마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농식품기후변화센터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의 농업 분야 연구와 기술보급 속도를 높여 국내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첨단전략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으로서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양 날개로 해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강진군, 병영면 '흙골제' 댐 개발 추진한다

### 홍수량 26% ↑... 이달 말 후보지 선정

강진군이 하천용수 공급 개선이 필요한 병영면 지로리에 있는 흙골제 일대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병영면 홍수량의 저감과 흙골제 댐 건설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강 군수는 이날 관계자들과 함께 흙골제를 방문, 병영면 지로리를 이장,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병영면 주요 사회단체장을 만나 흙골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병영면민들의 건의서를 건네 받았다.

강 군수는 "기존 하천기본계획 대비 홍수량이 26% 증가해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다"며 "현재 흙골제는 낮은 안전등급과 하천용수 공급 기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 담수로 갈수기에 유량 부족의 문제가 있어 하천 생태계 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23일 병영면 지로리 흙골제 현장을 찾아 흙골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능 유지가 곤란하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1일 환경부를 방문해 댐 재개발 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며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54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탐진강 수계의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수질 및 홍수조절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말라가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강진군은 전망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흙골제 건설은 국가적으로 물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병영면의 안전성 제고 및 생활 여건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병영면민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목포해수청,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 시행

### 휴가철 여객선 증선·증회 등 운항 횟수 확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25일부터 8월11일까지 18일간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

객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31만8천 명으로 전망되며, 방학과 휴가철이 집중된 8월3일에는 2만3천여명이 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기간 중에는 여객선의 증선·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32회 증가한 6천910회를 운항하며,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완도-청산, 당목-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을 각각 추가 투입, 목포-홍도, 화흥포-소안 등 총 6개 항로는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휴가철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사전 실시하고, 대책 기간 중 특별 교통 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휴가철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판로 개척

### 국제식품박람회 참여...한인회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은 25일 "2024 인도네시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해 함평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함평에푸드 한과 등 농특산물 10여개

품목을 전시·홍보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판촉 바이어 상담·해외 시장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상의 함평군수는 박람회에 개최되는 자카르타 현지에서 박제한(사)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만나 함평군 농특산물의 원활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앞으로 베트남, 홍콩, 프랑스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해 함평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군 농업 유통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유통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고품질의 함평농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영광군 제공)

##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준비 '착착'

### 郡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행사 계획·홍보방안 제시

영광군이 오는 10월1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영광 지식산업센터 일원(대마산단)에서 열리는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대행 용역 착수보고

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행 용역사는 e-모빌리티 전시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체험관, 특설 무대 등 행사장 시설물 조성 계획과 행사 전반적 운영·안전 관리 계획과 더불어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e-모빌리티 관련 완성차, 충전기, 부품 등 다양한 제품 전시 및 최신 e-모빌리티 동향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e-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행사에 200개 기업의 참여와 15만여명의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e-모빌리티 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 중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 "청렴 신안 만들기"...청렴클러스터 구축

### 郡·12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신안군은 25일 "지난 23일 관내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청렴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안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 12개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제도개선 시

상호 협력 ▲금품수수·직무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의 부패행위의 근절과 청렴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안군을 포함한 12개 기관의 장구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며 군민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양홍자 기자

신안군 관계자는 "협약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청렴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유관기관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의 교육과 안전,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는 서로 연관된 유기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약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안=양홍자 기자

## 진도군,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호응'

### 의료취약마을을 대상...61개소

진도군은 25일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항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상담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진도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의료상담을 통해 전기온열, 간섭과 전기자극 치료, 운동 상담 등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6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도면의 한 주민은 "몸이 불편해 병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 해소와 만성 퇴행성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